

세계기도정보

[필리핀] 필리핀의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말레이시아] 이슬람계 복지시설서 아동 성적 학대 171명 체포...400여 명 구출
 [소말리아] 소말리아서 알샤바브 18년째 활동...기독교인 위험 악화
 [부르키나파소] 7년간 알카에다 인질이었던 선교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영국] 청소년 25% “삶의 만족도 낮아”...유럽국가 중 최하위
 [미국] 테네시주 목사 자택서 괴한이 40여 발 총기난사...인명 피해 無
 [스위스]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집회 열려
 [파라과이] 남미 덮친 가뭄...파라과이강 수위 120년 내 최저
 [아프리카] 수단·차드는 홍수, 레소토는 가뭄에 타격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4년간 1만 7,000여 명 사망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전세계적 문제의 진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부흥회, 수천 명 참석 60여 명 세례

출처: 기도24.365
<http://prayer24365.org>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2024. 9
 멕시코에서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너는 왜 나를 책임 못 지나?

작년 아버님이 소천하신 이후 올해 들어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다. 귀가 어두운 어머니는 이제 내가 하는 전화 소리도 잘 듣지 못하십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울며 언제 내가 한국에 들어오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는 왜 헌신하지 않노.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노. 한국에 들어와 내 죽을 때까지 나를 데리고 있어 주면 안 되겠나? 살아있는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하는 니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어머니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그렇다고 또 선교지를 비우고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영원한 불효자다. 요즘 마음이 불편하다.

페루,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자는?

9월 18일 수요일, 페루 장로교 교회 총회장에서부터 연락이 왔다.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도 리마와 중심 지역 및 아마존 지역에서 제자 훈련을 중심 방법으로 한 신학교 사역이 진행하게 된다. 은퇴를 준비하는 선배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페루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자가 없어 비어 있는 예배당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페루 장로교 교회 총회의 요청을 받으며, 이것이 은퇴 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갈수록 사변화 되어가는 복음과 가르침 속에서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저 밀림 속 교회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사변화된 신학과 가르침이 아니라, 어쩌면 몸으로 살아내려는 그리고 살아내는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확정된 미래가 눈앞에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명확해 진다. 모든 사역은 선배 선교사님의 신학교와 교단의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일을 같이할 한국후배들이 있었으면 좋련만..., 후배들과 사역지를 다니며 어느덧 젊은 세대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낸 나를 발견한다.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는 현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하다.

이른 겨울

9월 9일 월요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미국 텍사스로 자동차를 몰고 떠났다. 9월 4일 페루에서 한 달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지만, 일단 과달라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미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한 후 텍사스 옆 애리조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 성도인 홀리안을 심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다. 9월 11일 수요일 저녁, 매일 12시간씩 운전하고 쉬며 3일을 달려 2년 만에 사랑하는 홀리안 형제를 만났다. 텍사스 옆이 애리조나라 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멀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멕시코에서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던 그는 지금 폐차장에 오래된 카라반을 빌려 지내며, 인근에서 폐자동차 분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온 나를 자신의 목사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만나기까지 길은 멀었지만, 만남은 기쁘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2년 동안 그가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힘든 이민 생활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지금은 행복해요. 비록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조금씩 이곳에서 신용을 쌓고 있어서, 내년에는 집을 구입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혼자 있으니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를 축복하며 저녁을 대접해 주었다. 자신의 카라반에서 자라고 기꺼이 자신의 숙소를 나에게 내어주는 홀리안, 그의 사랑을 느낀다. 9월 13일 금요일, 친구 집에 수령한 의약품을 잠시 맡기고 국립공원으로 들어왔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긴 설사와 페루로부터 시작된 긴 여행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 등으로 마음도 몸도 피곤하다. 어떻게 내 상황을 알았는지 호주에 있는 친구가 비자금이라며 나에게 보내 주었다. 잘 먹고 잘 쉬란다. 텐트를 치며 국립공원 이곳저곳을 돌며 기도하며 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한다. 9월 17일 화요일, 산속에 눈이 내렸다. 9월의 눈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날 임하시겠지?" 그리고 며칠 전 형님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한다: "확정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그렇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확정된 미래가 있다. 그날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자. 우리 주님,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주님, 나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평가도 섬김

10월 23일에서 29일까지 쿠바로 들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러브 쿠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1년을 새롭게 섬길 목회자들을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우리는 쿠바에 평가자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섬겨왔던 백 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다시 평가하고 누군가는 후원 명단에서 제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허일해야한다. 난 누구보다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친구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천석아, 평가도 섬김의 하나다." 이 또한 보내어진 헌금에 대한 나의 책임인가 보다. 이번 방문 기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러브쿠바가 지역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목회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가능한 정부의 눈을 피해 그들의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코스타리카, 멕시코 그리고 한국에서 모인 의약품을 하바나와 인근 지역 그리고 까마웨이에 전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쿠바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단체가 진행하는 이동식 신학교의 마지막 졸업식과 안수식을 하게 된다. 이스타 미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 죽전 우리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이 오신다. 이분들의 용기와 달리 그러나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으로 나는 생각이 많다. 이번이 나와 까를로스 목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쿠바 입국이 될 것이다. 이제 멕시코 팀에서 쿠바 사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 몇 년 만에 아내도 함께 들어간다. 그리고 나 이후에 이 일을 진행할 호세 목사님과 미겔 목사님도 함께한다. 순종하는 일은 나의 몫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믿는다.

기도제목:

1. 9월 29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의약품을 통과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2. 10월 쿠바 사역을 위한 준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 11월 말부터 진행되는 페루 사역 가운데 은혜 주셔서, 좋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